민선 4기 과제와 전망

❹ 제구실 하는 지방의회로

'거수기' 오명 벗고 감시기능 살려야

조례 제정·개정 소홀 '지방자치 장식품' 전락

권한 남용·관광성 해외연수 잿밥에만 눈독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15년동안 취약한 제도적 여건 아래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 낭비,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가 미흡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었다.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기능을 소홀히 해 '지방자치의 장식품'이라는 오명을 써왔었다.

관광성 해외연수 등 잿밥에 눈이 어두운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의원들은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취약한 입법 활동**=입법 역할과 관련해서 지난 4년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광주시의원들이 지난 2002년 7월 개원 이래 의원 발의 의결한 조례 건수는 모두 53건이다.

이는 전국 광역시의회 평균 발의 건수 20건(지난해말 기준)의 두배가 넘고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도 2.79건으로 전국 평균 0.72건의 3배를 넘는다.

또 그 내용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등 합리성과 시행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년동안 우수 조례 평가 단체부분 대상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광주시의회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가 4년동안 모두 28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 발의 53건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전남도의회의 현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지난 4년동안 처리한 조례안 230건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제·개정)은 단 14건에 불과하다.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0.27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부인 전남도가 발의한 것이다.

◇**견제와 감시는 어디로**=광주시의회 시정질의를 지켜보면 낯 뜨거운 인사말을 많이 듣는다.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한 의원이 "시장님께 시민들의 찬사가 많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시정역량으로…"라고 말한 것은 애교 수준이다.

또 다른 의원은 역시 시정질의 중 "광주에서 3개의 광(光)이 있는데 이는 광산업, 박광태 등이다"라고 말하며 단체장인 박광태 시장을 추켜세웠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1년 이상 펼쳐진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박광태 시장 퇴진 운동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 '시민대통합에 역행' '비합리적 활동'이라고 폄훼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하기 힘든 발언을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 회의에서 동료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스스로 집행부를 대신해 답변을 해주는 의원도 있는 등 견제와 감시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관광성 해외 연수**=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지난달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에는 광주·전남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출발 및 도착 비행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 대비 연수목적 부합 여행시간을 계산한 결과, 광주시의회의 연수목적 부합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이는 광역의회 평균 13.3%, 기초의회 평균 16.9% 등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연수가 관광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광주시의회, 광주 남구의회, 화순군의회, 무안군의회 등은 한차례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4차례 실시한 해외 연수가 모두 관광 여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임기말 해외 여행 집중이라는 병폐는 이번에도 재연됐다. 지난 1월 인도 연수를 다녀온 광주시의회를 비롯, 올 1~2월에만 전국 46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시권이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의지와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방자치의 분위기가 이제는 성숙해진만큼 4기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폭파 시범훈련 육군 공병학교(학교장·박병희 준장)는 8일 오후 장성 제병합동훈련장에서 상무대 간부과정 교육생, 기간간부, 야전부대 실무자, 조선대 군사학부생 등 1천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물 운용 및 장애물 극복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김영남 母子 상봉 주선"

"행적 확인…南 난관조성 않길"

8일 서울 송파구 수협회관에서 김영남씨의 모친 최계월씨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납북 김영남씨와 모친 최계월씨가 6·15 공동선언 6주년 남북이산가족 특별상봉행사를 통해 만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7일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우리 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흩어진 가족.친척 특별상봉 때 김영남과 귀측에 있는 어머니의 상봉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권 단장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18차 북남 상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김영남 문제를 우리 측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최근 우리 측 해당기관에서 김영남의 행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북남 적십자회담들에서 쌍방은 이러한 문제를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친척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측은 남측 내부에서 김영남과 그의 어머니의 상봉을 앞두고 그에 난관을 조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측 당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의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7일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번 이산상봉을 통해 김영남씨 모자의 만남을 실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최근 우리측 해당기관에서는 김영남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그가 우리측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하게 되는 특별상봉 때 김영남과 귀측에 있는 어머니와의 상봉을 실현시키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자천·타천 출마 의지…민주당 의원간 경쟁 불가피

지방의회 의장선거 물밑 경쟁 '후끈'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제5대 광주시의회와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19명의 의원 중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18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꼽힌다. 지난 광주시의회 4대 의원 19명 중 강박원·나종천·서채원·손재홍·유재신·이정남 의원 등 6명만 재입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후진 의원이 4대 광주시의회를 건너 뛰었지만 3선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내심 5대 전반기 의회 의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박원 의원은 62.5%라는 광주지역 최고 득표율과 최연장자임을 내세워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이어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다. 현직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서채원, 이정남 의원도 역시 도전 의사를 가지고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구의회 의장 출신인 나종천 의원, 현 산업건설위원장인 손재홍 의원, 시의회 최다선 의원인 김후진 당선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초선의원인 이상동 당선자가 초선 당선자 6명으로 '초월회'를 구성, 의장직에 도전장을 던질 태세여서 벌써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민주당으로서 잡음을 피해야 한다는 당내 지적이 많아 차기 시의회 의장은 당내 추대에 의해 선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음달 5일 개원 예정인 전남도의회는 하루 앞선 4일께 제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 51명의 90% 이상을 석권한 민주당 소속 재선 이상 그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지지세 확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도의원 당선자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의 김종철(여수1) 의원을 필두로 4선인 강우원(영암1)·이일형(고흥1) 의원, 3선인 김창남(장흥1)·이영윤(진도2), 재선인 박인환(구례2)·이탁우(보성2) 의원 등 7~8명이 자천타천 의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의장직을 향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황정호(목포1)·송대수(여수2)·박흥수(순천2)·김재무(광양2)·강종문(담양1)·송범근(담양2)·정창욱(장성2)·신윤식(고흥2)·황병순(보성1)·홍이식(화순2)·황호용(강진1)·이종헌(강진2)·김석원(해남1)·김철주(무안2)·김성호(함평1) 등 모두 22명이 재선 이상이다.

원 구성때 투표로 선출하는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2명), 상설 상임위원장 6명, 예결위원장 등 모두 10명. 의원정수(51명)의 56.9%인 29명이 초선이어서 재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의장단을 대부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